

'땅끝 해남' 우리 밀 최대 생산지 부상

밀다원과 생산협약 체결...내년까지 800ha로 재배 확대

보리수매 폐지 대비 대체작목으로 육성...농가 소득창출

'땅끝' 해남이 판로 확보를 통해 전남 도내 우리 밀 최대 생산지로 부상하고 있다. 해남군은 최근 SPC그룹 계열사인 ㈜밀다원(대표 이범순)과 생산협약 체결식을 하고 밀재배 생산기지화 조성을 통한 우리 밀 자급기반 구축과 농가 소득증대에 나섰다. 협약을 통해 군은 현재 우리 밀 재배면적 447ha

가운데 판로가 확보된 140ha를 제외한 307ha(1천200t)를 밀다원과 계약 재배를 추진, 40kg 한 포대를 3만 4천 원 이상으로 전량 수매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가격은 2009년산 쌀보리(1등) 수매가격 3만 910원에 비해 월등히 높은 가격으로 밀재배 면적 증가를 유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보리수매가 오는 2012년부터 폐지됨에

따라 도내 각 시·군마다 보리 대체작목 찾기에 부심하고 있어 해남군의 이번 생산 협약 체결은 농가 소득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우리 밀 재배 면적을 올해 447ha를 시작으로 2009년 800ha 이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밀다원에서 대형 건조 저장시설을 설치해 전남지역의 밀 물류센터 역할을 해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밀다원 관계자는 "밭 면적이 넓은 해남지역은 밀 재배의 최적지로 고품질 밀의 생산을 기대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장기 계약을 통해 해남 군내 생산 물량을 확대해 전량 수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함평에 '2008인분 무식 가미술' 등장

함평군에 국내에서 두 번째로 큰 무식 가미술이 등장했다. 2일 열린 '함평천지 한우산업특구지정 기념 한우인 한마당 잔치'에 사용하기 위해 함평축협이 구입한 이 가미술은 직경 1.8m, 무게 480kg으로 한번에 2천8명분의 밥을 지을 수 있다. <함평군 제공>

경 1.8m, 무게 480kg으로 한번에 2천8명분의 밥을 지을 수 있다. <함평군 제공>

해남 '부영이 시스템' 눈에 띄네

밤 10시까지 근무 연장...업무 효율성 높아

해남군이 야간 집중보고를 활용한 '부영이 시스템'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해남군은 '2009년도 신규시책과 주요업무보고'를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밤 10시까지 근무 시간을 연장했다. 이같은 근무시간 연장은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확정된 집행부 안을 오는 21일 이전 군의회에 제출해 심사의결을 거쳐야 하는 빠른날 일정 때문이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해남군은 각종 행사와 결재 등 업무 처리 때문에 보고가 지연되면서 그동안 업무보고 기간이 한 달 넘게 소요됐으나 이번 야간 집중보고를 통해 2주로 단축되는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박남재 해남군 기획홍보실 정책기획담당은 "그동안 평상 업무 시간대에 업무보고를 하려고 직원들이 대기하면서 일상 업무 처리에 지장이 많았는데, 야간보고를 통해 이를 없앨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

전남도 가뭄 비상체제 돌입

47억 투입 관정개발 추진 등

가을 가뭄이 지속됨에 따라 생활용수 급수대책을 실시하는 등 전남도가 지난 1일부터 비상체제에 들어갔다. 전남지역은 강수량이 평년의 60%에도 못미치는 등 가뭄 장기화로 운반·제한급수 지역이 증가, 8개 시·군 85개 마을 1만4천여명이 식수난으로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일선 시·군별로 가뭄대책 종합상황실을 가동하는 한편 수자원공사와 협조해 현행 광역상수도 급수체계를 가뭄비상 급수체제로 전환, 가뭄지역에 우선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등 물 부족 해別に 나서고

있다. 운반·제한급수지역에 대해서는 47억원을 긴급투입해 관정개발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가뭄이 계속될 경우 도 예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각급 학교와 공공시설, 주민 등을 대상으로 물 절약 홍보를 강화하고 수질검사를 분기별 1회에서 매월 1회로 강화해 수량감소에 따른 수질 악화에 대비할 계획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식수난이 확산되고 있는 섬 지역을 중심으로 먹는 샘물과 수돗물을 공급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희종기자 cha@kwangju.co.kr

'죽대 없는' 나주시 교통정책

상인들 반발에 CCTV 가동 2개월만에 작동 중단 버스승강장 이전도 '농협 농치보기'...일관성 상실

나주시 교통정책이 일관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나주시는 지난 7월부터 도심 상가 지역에 CCTV 6대를 설치하고 불법주차 차량 등 교통위반사범을 집중 단속했으나 상가 주민들의 반발로 2개월도 채 안 돼 작동을 중단했다. 상인들은 "그렇지 않아도 경기 침

체로 문을 닫을 지경인데 과잉 단속으로 그나마 찾아오던 손님들도 발길을 돌리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나주시는 이에 따라 주정차 안내도 우미 8명을 공개 모집해 현장에 배치하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불법주차 단속에 대한 홍보에 나서고 있어 '뺨박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상인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일시 작동을 중단했으나 조만간 CCTV를 통한 단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교통 체증이 극심한 지점에 설치돼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던 하나로마트 4거리 중부농협 앞 버스승강장을 불과 불과 10여m앞으로 옮겨 이전 효과가 의문시되고 있다. 나주시 교통행정과 최진 담당은 "농협의 반대로 더 멀리 옮기지 못했다"고 밝혔다. /나주=정철환기자 chung@

섬진강 기차마을, 민간에 위탁 운영

곡성군-코레일투어서비스, 협약 체결

곡성군이 직영해오던 섬진강기차마을에 대한 운영권이 민간에 위탁된다. 곡성군과 코레일(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투어서비스는 지난달 31일 곡성군에서 코레일투어서비스가 오는 12월 1일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섬진강기차마을의 운영을 맡기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체결로 기차마을은 별도 보조 없이 코레일투어서비스가 운영을 맡고 매년 군에서 정한 외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으며 당기 순이익금에 대해서는 군과 배분하게 된다. 곡성군은 3년여에 걸친 기차마을 직영에 따른 비용과 운영시스템의 한계, 늘어나는 시설물들에 대한 복

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폭증, 관련 관광프로그램 개발 부족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8월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강원도 정선군의 레일바이크, 바다 열차 등 다양한 철도 관련 관광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코레일투어서비스가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노하우와 코레일을 활용한 홍보 마케팅을 활용할 경우 기차마을의 수익성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5년 문을 연 섬진강기차마을은 연간 48만명의 관광객이 찾아 매년 9억원의 수입을 올리는 곡성의 대표 관광명소로 자리 잡았다. /곡성=김계종기자 kjkim@

"강진 CO₂ 배출량, 서울의 0.1%"

강진군 연구 용역 결과

강진군이 '그린리서치 연구소'에 기후변화 대응 실천전략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해 지난해 강진 지역의 연간 CO₂ 배출량을 산출한 결과 1만 9천130t으로 조사됐다. 이는 2006년 2만16천158t에 비해 7천여(27%)이 줄어든 수치며 2005년 2만2천262t에 비해서도 3천여이 적다. 이 배출량은 서울시 배출량 2천만 1천분의 1 수준이다. 부문별로는 건물 등 고정배출량 1만7천213t, 전기 등 수전배출량 1천 94t, 자동차 등 이동배출량 822t으로 조사됐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군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저탄소 사회 지향과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지구기 부단을 졸업시다! Going Green Gangjin'을 주제로 지속적인 캠페인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를 위해 고효율 저전력 전구로 조명기구 교체하는 등 실천 방안도 내놓을 계획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기후변화 대응 실천전략 마련을 위해 군 단위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CO₂ 배출량을 추정,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

"내년 예산편성, 주민 의견 수렴합니다"

완도군 주민 공청회

완도군이 효율적인 예산 운영과 행정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2009년 예산편성에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에 나섰다. 완도군은 지난달 3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운영위원, 사회단체장, 주민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예산편성방향 설명 및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 이번 공청회에서는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사회간접자본) 확충, 해양생물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해양문화관광 인



프라 구축, 복지환경기반 조성, 지역인재 육성 등 내년도 주요 시책이 소개됐다. 또 2009년도 재정여건과 방향, 중점투자 분야 등을 설명하고, 예산편성과 관련한 주민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내년도 예산에 주민 소득증대 사업과 금일·금당·생일권 교통난 해소, 관광 인프라 확충 등을 확대편성해 줄 것을 요구했다. /완도=정철환기자 jechung@

뚜껑이 열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나이트 광주첨단 3,000명

11월 14(금) 오픈

11월 14(금) 장운정

광주첨단·폭스존열 호박 나이트

15일 16일 조양조	17일 18일 승대관	20일 21일 최진희	25일 박현민	27일 28일 김수희	4일 5일 של운도
----------------	----------------	----------------	------------	----------------	---------------